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시행이 기업경영분석 통계편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과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따라 ① 기업 재무제표의 공시계정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고, ②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및 공정가치 평가의 적용 등으로 재무자료의 시계열 안정성 저하는 물론 회계기준의 이원화(상장기업 : IFRS, 비상장기업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기업간 비교가능성의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개별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통계의 준거가 되는 평가대상 재무제표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번에 시행되는 IFRS의 특징과 2009년도에 실제로 발표된 기업 재무제표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통계편제상에 시계열·기업간 비교가능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구성변화, 계정과목 체계 변경, 재무분석 지표 영향 등의 제반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제약요인은 국내에 IFRS용 재무제표의 사례가 매우 적었다는 점(2009년도 14개 기업)과 향후 IFRS용 회계기준의 추가 개정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IFRS용 재무제표의 발표사례 증가 및 추가적인 IFRS의 변경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고는 한국기업데이터 금융사업팀 김수현 부장이 집필하였으며 2009년 한국은행 외부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로 제출되었음.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I. 머리말

II. IFRS 도입배경과 사회적 영향

1. IFRS의 도입배경 및 적용일정
2. IFRS의 주요특징
3. IFRS와 K-IFRS의 비교
4. IFRS와 K-GAAP의 차이점

III.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개편방향

1. 재무계정 개편 검토절차
2. 국내 IFRS용 재무제표 사례연구
3. IFRS용 표준 재무제표 구성방안

4. 한국은행용 재무계정 구성(안)

5. IFRS용 통계자료의 순차적 적용방안

IV. IFRS용 재무분석 지표 개편방향

1. 재무분석 지표 개편방향과 유형구분
2. 재무분석 지표의 영향도 분석
3. 한국은행용 재무분석 지표 구성(안)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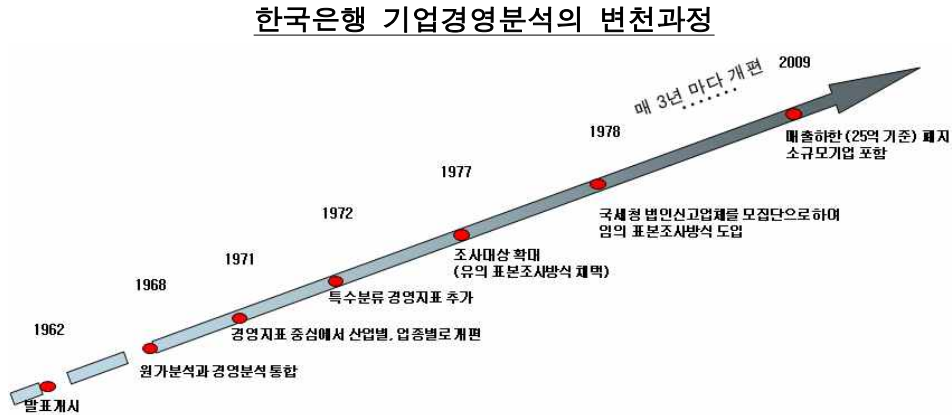
1. IFRS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과제
2. 통계편제 개편시 추가 참고사항
3. 본 연구의 제약사항과 향후 과제

I. 머리말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개별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자료이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적 현상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좌표이자 등대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준거지표로서의 역할 때문에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때로는 주변 환경변화를 수용하기도 하고 또는 환경변화를 선도하기도 하면서 그 동안 진보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통계이용자들의 요구사항 변화와 원천자료의 체계적 변화(회계기준 개정 등)에 따라 기업경영분석 통계의 편제와 수집방법을 개선,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이러한 진보와 변화는 향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최근 들어 전세계적인 자본시장의 통합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회계기준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급속히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마침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공표한 바 있다.¹⁾

IFRS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은 물론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편제에도 많은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II장에서 IFRS의 도입배경과 특징을 검토하여 기업 재무제표 및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미칠 영향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III장에서 IFRS 도입에 따른 계정과목 재정의(再定義), 재무지표에 대한 시계열 안정성 및 기업·산업간 비교가능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IV장에서 조사 프로세스 개편 방안과 추가적인 대응과제 마련 등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1) 이하의 'IFRS' 용어는 'K-IFRS'를 의미함

또한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최종 이용기관인 은행(13개 기관)을 비롯하여 회계정보 생성기관인 회계법인(삼정KPMG), 회계정보 제공기관인 상장사협의회, 그리고 기업정보DB 설계 및 분석을 수행하는 한국기업데이터(KED)와 메타컨설팅그룹(MCG)으로 구성된 'IFRS 대응 금융기관 협의회'의 최종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다.

II. IFRS 도입배경과 사회적 영향

1. IFRS의 도입배경 및 적용일정

1970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이사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EU 등 여러 기구들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고 서로 다른 국가들의 회계기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이후 EU는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2002년 규정 1606/2002호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유럽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EU 기업집단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국제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자본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그 동안 EU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용되어 온 IFRS가 빠른 속도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아 가게 되었다. 최근에는 일본 및

미국도 2011년부터 IFRS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민간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 등이 회계기준의 선진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나 이러한 작업만으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회계신뢰도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IFRS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회계기준 통일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위원단을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연구보고 발표 이후에 2007년 3월 IFRS 도입 로드맵 및 동년 12월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IFRS 적용대상 및 도입시기는 상장회사의 경우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비상장회사는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별도의 비상장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 현 K-GAAP과 유사)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 1>

IFRS의 국내 시행일정

구분	2008년까지	2009 ~ 2010년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기업 (상장회사+비상장회사)	현행 기준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상장회사	현행 기준	현행 기준	국제회계기준
비상장회사	현행 기준	현행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예고기

과도기

본격 적용

IFRS 조기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구분 없이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년 약 14개 회사가 IFRS에 맞춘 기업 재무제표를 발표한 바 있다.

2. IFRS의 주요특징

2009년부터 실제 적용된 IFRS는 기존의 회계기준 변경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IFRS의 주요한 특징은 '공시계정의 축소 및 상이', '원칙중심의 기준 수립', '공정가치 평가 도입 확대', '연결 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편제에 있어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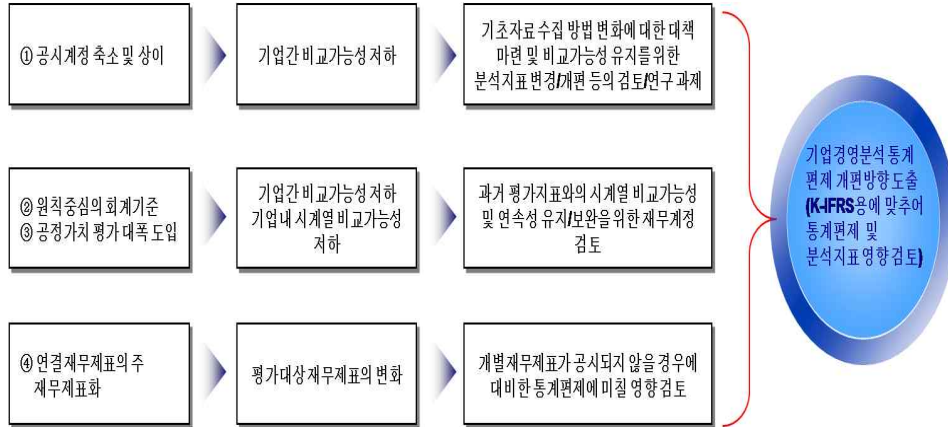
즉,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이 대폭 축소되고 기업간 공시과목이 상이해지며, 규정(rule)중심에서 원칙(principle)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변화하여 기업간 회계처리 차이에 따른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력 재무제표로 개별기업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됨으로써 평가대상 재무제표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에 공정가치 평가를 대폭 도입함으로써 과거 재무제표 금액과의 비교가능성(시계열 비교) 저하도 우려된다.

<그림 2>

IFRS의 주요특징과 기업경영분석에 미치는 영향



3. IFRS와 K-IFRS의 비교

IFRS의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IFRS와 우리나라가 채택한 K-IFRS의 차이점, 그리고 K-IFRS와 기존 우리나라 회계기준인 K-GAAP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IFRS와 우리나라의 K-IFRS는 현재 거의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한국의 법률체계에 맞추어 형식을 다소 변경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준서/해석서 번호, 적용범위, 경과규정 등에 형식적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정 원칙을 표방(IASB Chairman David Tweedie, 2007).

- ① 회계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기준 내에서 예외 규정을 지양한다(No Exceptions).
- ② 회계기준 내에서 목적과 핵심원칙(Core principles)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③ 회계기준서간 일관성을 유지한다(No inconsistencies among Standards).
- ④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규정한다(Tied to conceptual framework).
- ⑤ 개념체계와 다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결론도출 근거에서 설명한다.
- ⑥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Relies on Judgement).
- ⑦ 판단하고 선택한 방법과 이유에 대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 ⑧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한다.(Minimum guidance).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K-IFRS 제정절차 중 IFRS의 번역시 실무적으로 고려된 사항을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직역(word for word)을 추구하였고, 직역으로 의미 전달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설명을 가미하는 방식 즉, 문장 단위의 번역(sentence for sentence)을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4. IFRS와 K-GAAP의 차이점

우리나라가 채택한 K-IFRS는 기존 우리나라 회계기준인 K-GAAP과는 공시체계, 자산부채 평가방법,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등에서 근원적인 차별성이 존재한다.

<표 2>

K-GAAP과 IFRS 차이점(원칙적 측면)

구 분	K GAAP	IFRS	관련항목
공시체계	개별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 지분법 · 분반기 연결F.S
자산부채 평가방법상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은 취득원가 평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	· 투자부동산 · 총당부채 · 유형자산 등
법률 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	법률·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회계처리 요구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규정	· 대손충당금 추정 · 연결범위 · 지분법 적용 대상 · 개별재무제표 우선 공시

즉, IFRS의 도입은 지난 '기업회계기준서 21호' 도입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기업회계처리 패러다임의 변화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자 및 이용자는 물론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하는 사회·경제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 심대한 파급 영향을 초래하는 환경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K-GAAP과 K-IFRS의 차이점(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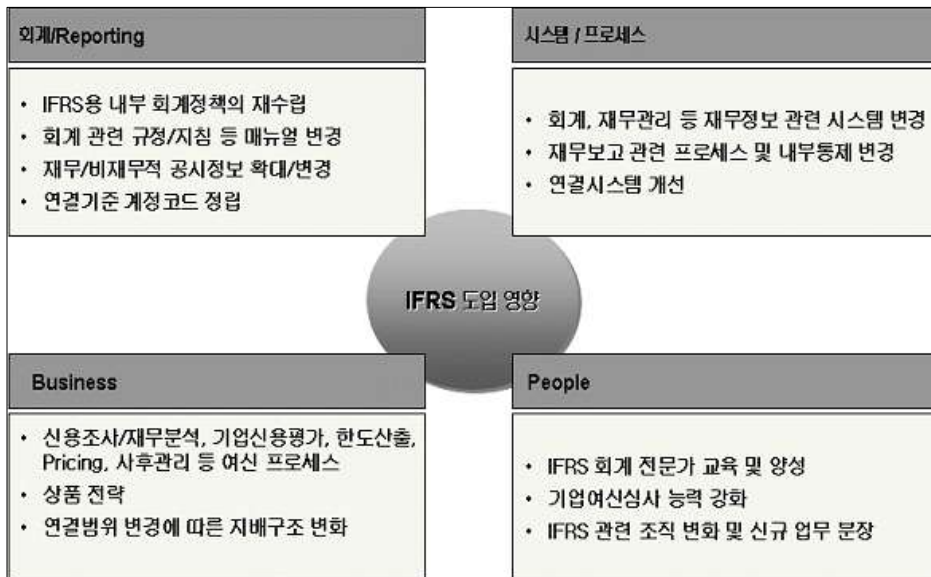
주요항목	K-GAAP	IFRS
연결의 범위	대주주이면서 30% 초과 소유 지분 (70억원 미만 기업 제외)	· 50% 초과 소유지분 · 70억원 미만 주식회사와 특수목적기업(조합, 파트너십, SPC)도 포함
지분법 적용대상	중대한 영향력 판단시 투자회사의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을 포함	중대한 영향력 판단시 투자회사의 지배회사를 통한 간접지분을 제외
유형자산	원가법만 적용	원가법과 재평가법 중 선택, 재평가시 평가차익은 자본에 보고
투자부동산	원가법만 적용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 공정가치법 선택시 평가차익은 당기손익으로 보고
감가상각	내용연수, 잔존가액 및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의무 없음	· 매 회계연도 말에 내용연수, 잔존가액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 · 감가상각방법 변경도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
자산의 손상평가	일반적으로 손상징후에 대한 주기적 검토의무 없음 회수 가능가액(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총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손상인식	손상징후에 매 기간말 검토의무, 회수가능가액(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순액과 공정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손상 인식, 손상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공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의 양도	일반적으로 매각처리 가능	매각처리 기준 강화로 차입처리 빈도 증가
무형자산과 이연법인세자산 등의 인식 기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80%이상) 경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음(50% 이상) 경우로 완화
영업권	20년 이내의 내용연수로 상각	· 상각 않고 기말 손상 여부만 평가 · 사업결합시 영업권과 별도로 측정 가능한 민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
충당부채와 이연법인세 부채 등의 인식기준	자원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이상) 경우	자원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음(50% 이상) 경우로 완화
포인트 미일리지	판매관리비와 충당부채로 인식	공정가치만큼 수익을 이연시키고 포인트 사용시점에 수익 인식
퇴직급여 부채	연말 일시퇴직을 가정하고 지급할 금액을 퇴직급여부채로 인식	보험수리적 가정에 미래퇴직시 지급할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로 측정
외화환산	기능통화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보고	기능통화의 개념하에 비기능통화에서 기능통화로의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기능통화에서 보고통화로의 환산 손익은 자본으로 보고
아파트 등 예약 매출	진행기준으로 수익 인식	완성인도기준으로 수익 인식
상환우선주	자본으로 분류	부채로 분류
채권채무 조정	기존 채무의 연속으로 보아 조정부분을 역사적원가로 측정	기존 채무가 소멸하고 새 채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새 채무를 공정가치로 측정
생물자산과 수확물	취득원가로 측정	순실현가치로 측정

구체적으로 기업 및 산업 측면에서는 회계정책의 재수립, 재무/비재무 공시정보 등 내부 회계제도 및 리포팅(reporting) 부분뿐만 아니라 시스템/프로세스, 비즈니스(business)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업 재무정보의 이용자들인 금융기관에서는 투자분석, 신용조사·재무분석, 기업신용평가, 여신한도산출 및 사후관리 등 각종 분석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운용전략, 사업 지배구조 등의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IFRS 도입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Ⅲ.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 개편방향

1. 재무계정 개편 검토절차

Ⅱ장에서 검토한 IFRS용 회계기준의 내용상 특징을 반영하여 2009년에 실제로 발표된 14개의 국내기업 IFRS용 재무제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제 발표된 재무제표를 통해 IFRS용 회계기준서의 구체적인 적용이 어떠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구성변화와 계정과목의 편제변화 등을 추출, 재무계정의 개편방향을 수립하는 토대로 삼았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체제개편을 위한 IFRS용 표준 재무제표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IFRS용 표준 재무제표의 구성변화에 따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적용하는 각종 재무분석 지표(재무비율)의 변화도 별도로 병기하였다.

먼저 IFRS용 재무제표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IFRS용 회계기준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무제표 구성, 재무계정 나열방식 및 재무지표의 생성 등에서 기존 K-GAAP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표 4>

K-GAAP과 비교한 K-IFRS의 특징(세부사항)

<p>1. 재무제표 표시의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 유동성/비유동성법, 유동성배열법, 혼합법 - 포괄손익계산서: 기능별/성격별분류, 단일의 보고서/2개의 보고서 - 현금흐름표: 직접법을 권장
<p>2.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에서는 최소한의 계정과목만 표시 - 1개의 회계사건에 대한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허용 - 공시할 세부 계정과목 및 범위를 기업 자율에 맡김
<p>3. 재무제표 구성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추가: 회계변경 등에 따라 소급적용시 비교기간의 기초재무상태표
<p>4. 업종별 재무제표 구분의 희석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업종별 기준서에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표시 - IFRS에서는 업종별 구분이 희석
<p>5. 본문계정 축소 및 주석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근거에 대한 주석을 강화, 세부항목은 주석에서 표시
<p>6. 연결재무제표의 주 재무제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재무제표 계정과목은 현재보다 축소 공시될 가능성이 높음

그 중 표준화작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구성 변화이며 주요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K-GAAP과 K-IFRS의 차이점(세부사항)

K-GAAP	K-IFRS	비고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명칭변경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명칭변경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제외	주석공시사항으로 변경
주석	주석	
-	기초 재무상태표 ¹⁾	추가

주: 1)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최초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를 표시
2) 제조원가명세서 등 두 회계기준 모두 표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음

기업들이 공시하는 재무제표 표시 및 계정과목의 다양화로 재무제표의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기업이 제출하는 IFRS용 재무제표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제출하는 다양한 형식의 재무제표를 체계적으로 DB화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이를 잠정적으로 표준 재무제표라고 정의하였다.

표준 재무제표를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여 구성하였는데, 첫째는 IFRS 관련 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무제표 표시 및 최소 계정과목을 기초로 전체적인 윤곽(framework)을 잡도록 하되, IFRS 도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조기 도입한 기업들의 IFRS 재무제표와 해외사례, XBRL IFRS용 계정과목 표준분류체계(taxonomy)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IFRS 표준 재무제표를 도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2. 국내 IFRS용 재무제표 사례연구

가. 재무상태표

기존 K-GAAP에서의 대차대조표는 대항목 계정순서를 “자산-부채-자본”의 순으로 기재하였다.

2009년 IFRS용 재무제표를 조기 도입한 기업들의 재무상태표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번째 사례로 STX 팬오션, KT&G, 이건산업, 영진약품공업,

인선이엔티, 다스텍, 지코엔루티즈 등 7개 기업은 재무상태표에서 대항목 순서를 “자산-자본-부채”의 순으로 변경하여 발표한 바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재무상태표 사례(자산-자본-부채 순서로 기재)

○○산업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목	제 44(당)기 1분기	제 43(전)기	
자 산			
I.비유동자산	3,369,380	2,784,727	
유형자산(주6,9)	3,191,328	2,707,372	
무형자산	34,528	33,072	
관계회사 지분증권	8,160	10,427	
보증금	8,402	3,191	
파생금융자산(주12)	173	-	
기타금융자산	113,403	19,738	
이연법인세자산(주8)	35	-	
기타비유동자산	13,351	10,927	
II.유동자산	1,855,282	1,920,478	
재고자산	42,883	46,10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주10)	850,774	852,747	
파생금융자산(주12)	73,044	100,505	
기타금융자산	436,623	398,021	
현금및현금성자산	451,958	523,101	
자 산 총 계	5,224,662	4,705,205	
자 본			
I.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839,060	2,748,322	
자본금	205,858	205,858	
자본잉여금	673,140	673,140	
자기주식	(23,722)	(23,722)	
기타자본	748,875	484,487	
이익잉여금	1,234,909	1,408,559	
II.소수주주지분	8,500	5,651	
자 본 총 계	2,847,560	2,753,973	
부 채			

이에 반해서 풀무원 홀딩스, 풀무원, 코스모화학, 디스플레이테크, 한국큐빅 등 5개 기업은 기존 대차대조표와 같이 대항목 계정순서를 “자산-부채-자본”의 순으로 발표한 바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재무상태표 사례(자산-부채-자본 순서로 기재)

주식회사 XX산업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26기 반기	제25기	(검토받지 않은 연결재무제표)
자 산			
I. 유동자산	260,423,560,498		201,024,416,403
현금및현금성자산(주식 6,7)	42,946,054,518		40,138,259,045
단기금융상품(주식 7)	20,232,135,745		7,732,135,745
파생금융상품(주식 7,37)	634,717,527		251,408,024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식 7,8,39)	132,454,302,579		98,594,585,025
매도가능금융자산(주식 7,15)	4,715,714,880		-
재고자산(주식 9)	26,151,401,513		27,938,954,635
기타유동자산(주식 10)	33,289,233,736		28,369,073,929
II. 비유동자산	349,293,809,111		334,641,300,283
유형자산(주식 11,19)	283,452,287,773		262,189,384,510
투자부동산(주식 12)	26,809,681,194		27,000,671,699
무형자산(주식 13)	15,870,641,169		17,184,233,323
장기금융상품(주식 7)	211,500,000		172,500,000
장기성매도가능금융자산(주식 7,15)	378,685,440		7,883,157,140
관계기업투자(주식 14)	3,563,173,221		3,351,071,723
공동기업투자(주식 14)	392,581,936		377,911,970
이연법인세자산(주식 22)	2,503,495,311		1,730,515,154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식 7,16,39)	14,235,927,980		12,523,072,559
장기성파생금융상품(주식 7,37)	44,222,277		271,531,453
기타비유동자산(주식 17)	1,831,612,810		1,957,270,752
자 산 총 계	609,717,369,609		535,665,716,686
자 본 및 부 채			
I. 유동부채	229,797,837,195		263,898,091,078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식 7,16,39)	115,615,292,329		111,536,064,226
단기차입금(주식 7,19)	98,505,523,402		138,256,539,794
당기법인세부채(주식 22)	4,797,402,508		10,834,796,537

나.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의 표기방식도 기존 K-GAAP에서는 “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영업이익” 순으로 기재하였는데 2009년도 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들은 크게 3가지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 사례는 STX팬오션, KT&G, 풀무원홀딩스, 풀무원, 이
건산업, 영진약품공업, 디스플레이테크 등 총 7개 기업은 “매출총
이익-기타수익-판매관리비-영업이익” 순으로 기재하고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포괄손익계산서 사례(기타수익-판매관리비 순서로 기재)

주식회사 ○○○산업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23(당) 기 1/4분기	제 22(전) 기 1/4분기
매출	3, 27	853,446,264,168	727,712,063,675
매출원가	27	(359,798,349,214)	(277,469,933,087)
매출총이익	3	493,647,914,954	450,242,130,588
기타수익	23	54,015,599,615	18,367,244,922
판매비와관리비	23	(188,587,350,298)	(183,340,956,114)
기타비용	23	(13,549,110,076)	(9,123,027,811)
영업이익	3	345,527,054,195	276,145,391,585
금융수익	24	3,972,959,620	8,552,105,534
금융원가	24	(3,006,523,513)	(1,781,324,325)
순금융수익(원가)	24	966,436,107	6,770,781,209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지분 감소	7	(120,453,933)	(67,215,380)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346,373,036,369	282,848,957,414
법인세비용	25	(89,603,680,335)	(80,971,234,851)
당기순이익		256,769,356,034	201,877,722,563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8	51,346,304,040	1,208,347,313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2,141,733,248	(862,332,774)
보험수리적이익(손실)	21, 25	1,017,869,989	(8,703,037,962)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이익(손실)		54,505,907,277	(8,357,023,423)
총포괄이익		311,275,263,311	193,520,699,140

두번째 사례로 인선이엔티, 다스텍(매출원가를 성격별로 표시), 한국큐빅, 지코엔루티즈 등 4개 기업은 “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기타수익”의 순으로 발표하였다.<그림 7> 참조)

<그림 7>

포괄손익계산서 사례(판매관리비-기타수익 순서로 기재)

XXX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단위: 원)		
구	분	주 석	당분기	전분기
매출		30	31,137,254,749	23,238,328,328
매출원가		30	(19,264,532,979)	(17,060,948,228)
매출총이익			11,872,721,770	6,177,380,100
판매비와관리비		31	(4,520,646,300)	(3,649,773,251)
정상영업이익			7,352,075,470	2,527,606,849
기타수익		32	113,441,069	1,070,314,454
기타비용		32	(101,442,231)	(104,345,857)
금융수익		33	77,495,617	32,556,481
금융비용		33	(987,020,802)	(667,415,92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454,549,123	2,858,716,002
법인세비용		34	(1,744,232,670)	(813,373,961)
계속영업이익			4,710,316,453	2,045,342,041
중단영업손익		35	(55,105,441)	(283,123,977)
분기순이익			4,655,211,012	1,762,218,064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33	2,095,261	(3,333,762)
현금흐름위험회피		33	(425,268,647)	-
기타포괄손익관련 법인세효과		33	94,696,644	916,784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			(328,476,742)	(2,416,978)
총포괄이익			4,326,734,270	1,759,801,086

마지막으로 ○○화학(주)는 IFRS용 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도 기존 K-GAAP과 동일한 순서인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영업이익” 순으로 포괄 손익계산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림 8> 참조)

<그림 8>

포괄손익계산서 사례(판매관리비-기타수익 순서로 기재)

구분	제42기 분기	제41기 분기	제41기
매출액	24,971,597,709	23,442,934,295	103,633,429,228
제품매출액	24,706,620,939	22,137,897,295	101,723,514,046
상품매출액	135,436,770	725,485,000	1,330,363,182
기타매출액	129,540,000	579,552,000	579,552,000
매출원가	19,422,802,423	23,141,127,652	93,938,864,851
제품매출원가	19,275,370,173	22,443,694,459	92,684,400,545
기초제품재고액	10,109,859,373	1,378,430,310	1,378,430,310
타계정에서대체액	-	-	-
당기제품제조원가	16,922,517,636	23,236,075,649	101,417,464,981
타계정으로대체액	(575,093,933)	(454,477)	(1,635,373)
기말제품재고액	(7,181,912,903)	(2,170,357,023)	(10,109,859,373)
상품매출원가	135,574,750	651,069,033	1,208,100,146
기초상품재고액	-	177,010,128	177,010,128
타계정에서대체액	6,587,350	-	-
당기상품해입액	128,987,400	575,972,560	1,031,238,168
타계정으로대체액	-	(141,086)	(148,150)
기말상품재고액	-	(101,772,569)	-
기타매출원가	11,857,500	46,364,160	46,364,160
매출총이익	5,548,795,286	301,806,643	9,694,564,377
판매비와관리비	2,973,180,666	2,950,138,066	12,382,540,070
급여	747,039,200	684,421,660	2,588,719,308
퇴직급여	68,566,729	342,972,269	433,409,312
복리후생비	55,179,125	108,215,867	505,852,273
여비교통비	66,235,681	38,495,666	188,564,642
통신비	25,649,465	26,974,284	93,130,451
수도광열비	6,737,542	7,297,246	21,718,093

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견산업, 디스플레이테크, 한국큐빅, 코스모화학 등 4개 기업은 기존 K-GAAP에서와 같이 항목을 세분화하여 표시하고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9>

현금흐름표 사례(영업활동현금흐름의 세분화 표기)

과 목	제 38(당)기 1분기	제 37(전)기 1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840,227,345)	(7,416,931,041)
(1) 당기순이익	304,951,226	(4,186,954,530)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들의 가산	12,560,461,612	7,013,786,916
대손상각비	-	109,913,162
이자비용	4,397,675,193	2,247,267,172
법인세비용	-	29,898,39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496,361,160	-
감가상각비	746,200,980	547,640,252
유형자산상각비	6,135,747	-
유형자산처분손실	1,790,960	-
무형자산평가손실	24,500,000	-
퇴직급여	537,282,166	375,598,452
외환환손실	6,370,495,606	3,703,251,490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들의 차감	(14,091,626,865)	(977,229,526)
재고평가손실환입	51,597,217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6,563,211,754	-
외환환손이익	3,457,726,115	653,901,09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36,186,319	-
유형자산처분이익	66,981,502	43,267,744
이자수익	307,516,776	274,080,692
배당금수익	6,000,000	6,000,000
법인세이익	1,560,605,202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5,094,041,213)	(7,293,336,547)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703,377,303	(6,778,461,542)
기타당좌자산의 감소(증가)	(233,560,120)	(26,023,520)
채고자산의 감소(증가)	(2,465,788,398)	337,911,043
할기실미수금의 감소(증가)	4,500,000	5,700,000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179,619,797)	(326,735,393)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754,949,162)	(345,563,100)
접수금의 증가(감소)	2,293,546,169	12,751,697
예수금의 증가(감소)	(293,337,234)	(3,956,940)
부기세예수금의 증가(감소)	(984,320,541)	(658,296,657)
수입보통금의 증가(감소)	20,000,000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406,410,815)
회칙금의 차감	(1,731,136,020)	(605,652,490)
차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751,962,575	324,575,551
(5) 이자 및 법인세 납부액	(4,829,772,295)	(1,973,199,356)
이자지급	(4,624,993,504)	(1,964,451,245)
배당금 수령	6,000,000	6,000,000
법인세 납부	(30,778,791)	(14,748,105)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505,076,110	(326,675,63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333,943,673	525,705,384
당기금융상품의 감소	539,676,400	474,267,15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616,59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5,050,000,000	-
기계장치의 처분	117,477,273	51,436,234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28,867,563)	(854,581,017)
당기금융상품의 증가	503,676,000	539,676,4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7,500,000	15,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66,616,400	-

반면 STX펜오션, KT&G, 풀무원홀딩스, 풀무원, 영진약품공업, 인선이엔티, 다스텍, 지코엔루티즈 등 8개 기업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로 발표한 바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현금흐름표 사례(영업활동현금흐름의 비세분화 표기)

과목	제26기 1분기		제25기 1분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115,565,759,109)		(66,929,848,194)
I. 영업활동현금흐름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6,596,950,541)		(2,884,276,144)	
가. 분기순이익	1,123,794,716		5,354,978,838	
나. 조정 :	17,467,447,854		14,090,783,697	
원적급여	2,475,610,426		1,666,311,325	
법인세비용	784,313,906		2,607,614,046	
감가상각비	7,468,713,316		5,549,613,575	
무형자산상각비	616,720,502		471,163,106	
대손상각비	183,849,273		107,222,877	
금융비용	3,784,670,321		1,640,167,990	
외화환산손실	527,199,490		-	
유형자산처분손실	243,307,994		304,670,754	
기타의대손상각비	9,277,407		29,156,450	
관계기업투자이익	28,368,694		7,573,704	
기타 현금의 유출없는 비용들	2,762,346,209		2,115,409,869	
금융수익	(712,435,850)		(378,778,634)	
외화환산이익	(182,991,421)		(119,606,077)	
대손충당금환입	(4,930,035)		(43,558,970)	
유형자산처분이익	(52,386,154)		(29,484,907)	
무형자산처분이익	-		(55,648,858)	
관계기업투자손실	-		(26,144,338)	
기타 현금의 유출없는 수익들	(465,586,216)		(38,236,015)	
다. 자산 - 부채의 증감:	(25,132,133,366)		(22,329,978,677)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49,055,075,053)		(23,942,246,809)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367,346,793)		(11,397,660)	
채권자산의 증가	(48,973,703)		(663,600,368)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	23,485,039,404		2,561,124,681	
기타유동부채의 증가	447,567,429		637,562,612	
원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193,990,036		(405,067,906)	
국민연금정화금의 감소	7,829,754		3,996,009	
확장보험매지급의 감소	677,124,199		366,119,591	
관계회사원칙금의 이입	321,616,842		146,995,193	
관계회사원칙금의 전출	(157,263,511)		-	
원적금지급액	(1,924,902,354)		(824,172,729)	
기타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증감	1,068,349,404		908,520	
2. 잉여수취	435,348,274		152,476,932	
3. 어차지급	(3,467,647,931)		(1,544,136,295)	
4. 법인세의 납부	(5,902,958,956)		(2,653,972,607)	
II. 투자활동현금흐름		(47,677,904,120)		(13,220,647,3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520,000,000		2,980,000,000	
보통금의 회수	295,190,000		626,750,100	
단기대여금의 회수	246,953,004		3,500,000	
유형자산의 처분	2,555,166,921		334,930,219	
무형자산의 처분	-		77,575,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4,660,000,000)		(3,779,46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0,036,065,239)		(133,000,000)	
보통금의 증가	(1,131,230,234)		(1,810,946,123)	
장기대여금의 대여	-		(25,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6,192,924,313)		(14,574,014,924)	
무형자산의 취득	(74,994,268)		(678,663,190)	

3. IFRS용 표준 재무제표 구성방안

국내 13개 은행 및 회계법인(삼정 KPMG), 상장사협의회, 그리고 기업정보DB 제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KED)와 컨설팅 업체인 메타컨설팅그룹(MCG) 등으로 구성된 'IFRS 대응 금융기관 협의회'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표준 재무제표 안을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는 2개 이상의 선택 가능한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시방법(사례연구 감안)을 IFRS 표준으로 선택하되 현금흐름표는 실무적인 편의성을 고려한다는 원칙하에 표준 재무제표 구성에 적용할 기본원칙을 <표 6>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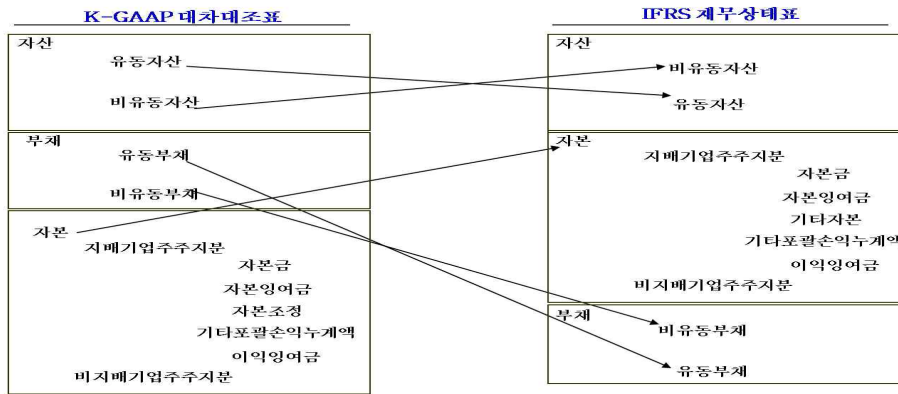
IFRS용 표준 재무제표 구성 원칙

재무제표	기본 내용
재무상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IFRS에서는 유동성/비유동성법, 유동성배열법, 혼합법 중 선택 가능 - 제조업종의 경우, 유동성/비유동성법에 따라 작성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비유동성법을 표준으로 선택 -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에서 유동성이 높은 순서로 표시(비유동성항목 → 유동성항목)하고 자본은 자산과 부채 사이에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손익계산서는 비용의 표시방법에 따라 "기능별 표시방법"과 "성격별 표시방법"으로 선택 가능 - 실제 사례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능별 표시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기능별 표시방법을 표준으로 선택하되 성격별 항목은 참조항목으로 표시 - 영업이익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시는 하였으나 그 산출방법은 상이함에 따라 참조항목으로 표시
현금흐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IFRS에서는 직접법을 권장 - 그러나, 실제 사례분석 결과 직접법에 따라 공시한 기업은 전무함에 따라 간접법을 표준으로 선택 -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현행과 동일하게 세부적인 표시방법을 선택

이상의 구성원칙을 적용하여 구성된 IFRS용 표준 재무제표를 기존 재무제표 표시체계인 K-GAAP과 비교하면 향후 <그림 11> 과 <그림 12>와 같은 대항목의 구성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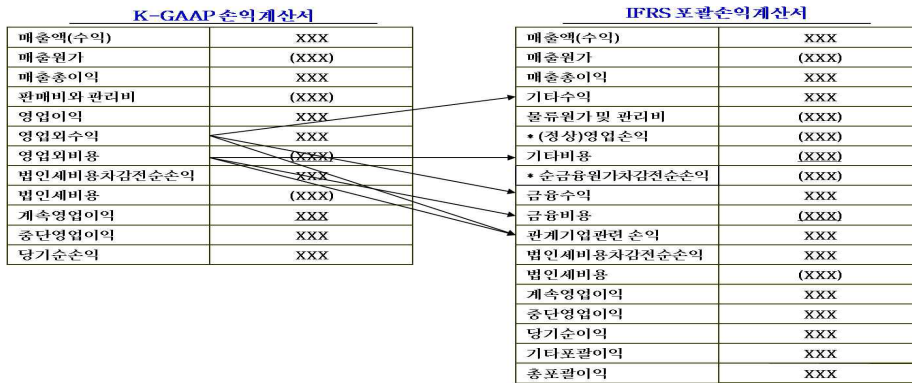
<그림 11>

IFRS용 표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협의회 도출안)



<그림 12>

IFRS용 표준 재무제표: 포괄 손익계산서(협의회 도출안)



2) 2009년 "K-IFRS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 공동대응 연구 최종 보고서" 참조

<그림 11> 및 <그림 12>와 같은 재무제표의 구성변화를 고려하여 한국은행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IFRS용 표준 재무제표의 사례를 제시하면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IFRS용 재무상태표(안)

계정코드	계정코드명	단위	계정대	요역재무제
111001001	자산(+)	천원	1	Y
111002002	비유동자산(+)	천원	2	Y
111003003	유동자산(+)	천원	3	Y
111082003	영양권	천원	3	Y
111085003	무형자산(+)	천원	3	Y
111117003	생물자산(+)	천원	3	Y
111134003	투자부동산(+)	천원	3	Y
111146003	기타투자자산(+)	천원	3	Y
111153003	투자자산(+)	천원	3	Y
111158003	매도가능금융자산(+)	천원	3	Y
111163003	민간금융자산(+)	천원	3	Y
111169003	기타 금융자산(+)	천원	3	Y
111197003	장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천원	3	Y
111241003	이연법인세자산	천원	3	Y
111242003	기타 비유동자산(+)	천원	3	Y
111283002	유동자산(+)	천원	2	Y
111284003	재고자산(+)	천원	3	Y
111309003	단기 금융자산(+)	천원	3	Y
11133200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천원	3	Y
111362003	기타유동자산(+)	천원	3	Y
111376003	현금 및 현금성자산(+)	천원	3	Y
11138400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유동자산(+)	천원	3	Y
111423001	차분(+)	천원	1	Y
111429002	차별기업구조조정	천원	2	Y
111430003	차분액(+)	천원	3	Y
111433003	차분액(+)	천원	3	Y
111447003	기타차분(+)	천원	3	Y
111456003	기타포괄손익계역(+)	천원	3	Y
111466002	이익잉여금(결손금)(+)	천원	3	Y
111486003	비지배기업주주지분	천원	2	Y
111488001	부채(+)	천원	1	Y
111489002	비유동부채(+)	천원	2	Y
111490003	시채(+)	천원	3	Y
111519003	장기차입금(+)	천원	3	Y
111531003	장기 금융부채(+)	천원	3	Y
111546003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천원	3	Y
111570003	담적급여부채(+)	천원	3	Y
111577003	장기충당부채(+)	천원	3	Y
111586003	이연법인세부채	천원	3	Y
111587003	기타비유동부채(+)	천원	3	Y
111633002	유동부채(+)	천원	2	Y
111634003	단기시채	천원	3	Y
111640003	단기차입금(+)	천원	3	Y
111646003	유동상장기부채(+)	천원	3	Y
111647003	(현재가치할인차금)	천원	3	Y
111657003	단기 금융부채(+)	천원	3	Y
11166900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천원	3	Y

<그림 14>

IFRS용 포괄 손익계산서(안)

계정코드	계정코드명	단위	계정대	요역재무제
112001001	매출액(수익)(+)	천원	1	Y
112021001	매출원가(+)	천원	1	Y
112057001	매출종이익(손실)	천원	1	Y
112058001	기타수익(+)	천원	1	Y
112090001	물류원가 및 관리비(+)	천원	1	Y
112138001	* (정상)영업손익	천원	1	Y
112139001	기타비용(+)	천원	1	Y
112167001	*순금융원가차감전이익(손실)	천원	1	Y
112168001	금융수익(+)	천원	1	Y
112190001	금융비용(+)	천원	1	Y
112211001	관계기업(조인트벤처,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관련	천원	1	Y
11221600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천원	1	Y
112217001	법인세비용	천원	1	Y
112218001	계속영업이익(손실)	천원	1	Y
112219001	종단영업이익(손실)(+)	천원	1	Y
112220001	당기순이익(손실)	천원	1	Y
112221001	기타포괄손익(+)	천원	1	Y
112222002	금융자산평가손익	천원	2	Y
11222300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천원	2	Y
112224002	관계기업 등 기타포괄손익	천원	2	Y
112225002	해외사업환산이익(환율변동)	천원	2	Y
112226002	연결무형자산의 평가손익	천원	2	Y
112227002	보험수익적손익	천원	2	Y
112228002	사할기손익	천원	2	Y
112229002	기타	천원	2	Y
112230002	기타포괄손익관련 법인세	천원	2	Y
112231001	종표포괄손익	천원	1	Y
112244001	* 상역별 비용계정(+)	천원	1	Y
112245002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천원	2	Y
112246002	원재료와 저장품(소모품)의 사용액	천원	2	Y
112247002	상품의 판매	천원	2	Y
112248002	기타원가	천원	2	Y
112249002	종업원 급여비용	천원	2	Y
112250002	감가상각비와 기타상각비 및 손상차손	천원	2	Y
112251002	물류비(운송보관)	천원	2	Y
112252002	광고 및 판매촉진비	천원	2	Y
112253002	운송리스크 및 임차료	천원	2	Y
112254002	경상연구개발비	천원	2	Y
112255002	기타비용	천원	2	Y

<그림 15>

IFRS용 현금흐름표(안)

계정코드	계정코드명	단위	계정대	요역내부
114001001	영합출용으로 인한 현금유입(+)	천원	1	Y
114018002	당기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천원	2	Y
114018002	현금 유입이 없는 비용 등 기산(+)	천원	2	Y
114020003	금융비용	천원	3	
114021003	이자비용(+)	천원	3	
114078002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	천원	2	Y
114079003	금융수익	천원	3	
114080003	이자수익	천원	3	
114131002	영합출용으로 인한 자산투자 변동(원천지분 변동)(+)	천원	2	Y
114132003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천원	3	
114133003	공시미수금의 감소(증가)	천원	3	
114178002	영합에서 창출된 현금유입(+)	천원	2	Y
114179002	(이자지급(수입))	천원	2	Y
114180002	배당금수입(지급)	천원	2	Y
114181002	(법인세납부(환입))	천원	2	Y
114182002	종단영합관련 현금유입	천원	2	Y
11418300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천원	1	Y
11418400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천원	2	Y
114185003	당기순이익의 감소	천원	3	
114186003	당기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감소	천원	3	
11422300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천원	2	Y
114224003	당기순이익의 증가	천원	3	
114225003	당기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증가	천원	3	
114272002	(이자지급(수입))	천원	2	Y
114273002	배당금수입(지급)	천원	2	Y
114274002	(법인세납부(환입))	천원	2	Y
114275002	종단영합관련 현금유입	천원	2	Y
11427600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천원	1	Y
11427700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천원	2	Y
114278003	이자수입	천원	3	
114279003	당좌지출의 증가	천원	3	
11430000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천원	2	Y
114301003	이자지급	천원	3	
114302003	당좌지출의 감소	천원	3	
114322002	(이자지급(수입))	천원	2	Y
114323002	배당금수입(지급)	천원	2	Y
114324002	(법인세납부(환입))	천원	2	Y
114325002	종단영합관련 현금유입	천원	2	Y
114328001	연결영합관련 자산의 증가	천원	1	Y
114327001	원천지분 변동	천원	1	Y
114328001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천원	1	Y
114329001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천원	1	Y

<그림 16>

IFRS용 자본변동표(안)

계정코드	계정코드명	단위	계정대	요역내부
118001001	기말자본금(+)	천원	1	Y
118002002	기초자본금	천원	2	
118003002	외채장악변경누적효과	천원	2	
118004002	오류수정 등	천원	2	
118013002	기타	천원	2	
118014001	기말자본잉여금(+)	천원	1	Y
118015002	기초자본잉여금	천원	2	
118016002	외채장악변경누적효과	천원	2	
118017002	오류수정 등	천원	2	
118031002	기타	천원	2	
118032001	기말기타자본(+)	천원	1	Y
118033002	기초기타자본	천원	2	
118034002	외채장악변경누적효과	천원	2	
118035002	오류수정 등	천원	2	
118044002	기타	천원	2	
118045001	기말기타잉여금(결손금)(+)	천원	1	Y
118046002	기초기타잉여금(결손금)	천원	2	
118047002	외채장악변경누적효과	천원	2	
118048002	오류수정 등	천원	2	
118059001	기타	천원	2	
118060001	기말이익잉여금(결손금)(+)	천원	1	Y
118061002	처분후 이익잉여금(결손금)(+)	천원	2	
118062003	수정후 이익잉여금(결손금)(+)	천원	3	
118063004	기초 이익잉여금(결손금)	천원	4	
118067003	(환지배당)	천원	3	
118072002	(종근배당)	천원	2	
118073002	기타포괄손익	천원	2	
118074002	당기순이익(종포괄손익)	천원	2	
118078002	기타	천원	2	
118079001	기말비지배주주지분(+)	천원	1	Y
118080002	처분후 비지배주주지분(+)	천원	2	
118081003	수정후 비지배주주지분(+)	천원	3	
118082004	기초 비지배주주지분	천원	4	
118088002	(종근배당)	천원	2	
118089002	당기순이익(종포괄손익)	천원	2	
118100002	연결영합의 변동	천원	2	
118101002	기타	천원	2	
118102001	합계	천원	1	Y

4. 한국은행용 재무계정 구성(안)

기업 회계정보의 일반적인 이용자들인 정책감독당국, 연구기관, 금융기관(은행 등 여신 금융기관의 신용분석, 투자금융기관의 투자분석), 신용평가기관 등은 각각의 재무제표 이용 목적에 따라 상세한 재무계정 항목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는 통계목적의 자료를 생성해야 하므로 지나치게 상세한 계정과목보다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는 큰 모양에서의 계정체계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기업데이터 등 기업재무 정보제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IFRS용 재무제표 계정코드를 통상 2,000여개의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에서는 오히려 조사자료를 축소 조정하여 산업별 재무제표 및 재무지표가 간명하고 포괄적인 형태로 표현되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K-GAAP 환경 하에서 작성되어 오던 기업경영분석의 재무자료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의 변화를 주면서도 금번의 IFRS 재무제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계정 코드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IFRS용 표준 재무제표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편제형식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춘 조건표를 이용하여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표 7> 참조)”, “손익계산서-포괄 손익계산서(<표 8> 참조)”, “현금흐름표(<표 9> 참조)”로 제시하여 보았다.

<표 7>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용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조건표

K-GAAP	K-IFRS
자산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당좌자산	유형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토지
단기투자자산	설비자산
매출채권	(건물·구축물)
기타당좌자산	(기계장치)
재고자산	(선박·차량운반구)
상(제)품 및 반제품	(기타설비자산)
원재료	건설중인자산
기타재고자산	기타유형자산
비유동자산	영업권
투자자산	무형자산
(장기투자증권)	(개발비)
유형자산	투자자산
토지	매도가능금융자산
설비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건물·구축물)	기타비유동자산
(기계장치)	유동자산
(선박·차량운반구)	재고자산
(기타설비자산)	상(제)품 및 반제품
건설중인자산	원재료
기타유형자산	기타재고자산
무형자산	단기금융자산
(개발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기타비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유동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처분자산집단
부채	자본
유동부채	자본금
매입채무	자본잉여금
단기차입금	기타자본
유동성장기부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유동부채	(재평가잉여금)
비유동부채	이익잉여금
회사채	부채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사채
자본	장기차입금
자본금	기타비유동부채
자본잉여금	유동부채
자본조정	단기사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단기차입금
(자산재평가이익)	유동성장기부채
이익잉여금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기타유동부채
	매각예정 분류 처분자산집단의 부채
부채 및 자본의 합계	부채 및 자본의 합계

주 : K-IFRS에서는 자산⇒자본⇒부채 순으로 재무상태표를 표시하고 자산과 부채는 다시 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유동자산/유동부채 순으로 유동성이 낮은 계정에서 유동성이 높은 계정 순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

<표 8>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용 손익계산서/포괄 손익계산서 조건표

K-GAAP	K-IFRS
매출액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매출총손익
판매비와관리비	기타수익
급여	외환차익
퇴직급여	외환환산이익
복리후생비	자산처분이익
수도광열비	자산재평가이익
세금과공과	기타
임차료	물류원가및관리비
감가상각비	급여
접대비	퇴직급여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경상개발비·연구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세금과공과
운반·하역·보관·포장비	임차료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접대비
(개발비상각)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기타판매비와관리비	보험료
영업손익	운반비
	기타물류원가
	보관료
	포장비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개발비상각)
	지급수수료
	기타
영업외수익	기타비용
이자수익	외환차손
배당금수익	외환환산손실
외환차익	자산처분손실
외환환산이익	자산재평가손실
파생금융상품거래이익	기타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금융수익
투자·유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
지분법평가이익	배당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파생상품거래이익
영업외비용	파생상품평가이익
이자비용	기타금융수익
외환차손	금융비용
외환환산손실	이자비용
파생금융상품거래손실	파생상품거래손실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	기타금융비용
지분법평가손실	관계기업관련 손익
자산재평가손실	지분법손익
기타영업외비용	관계기업처분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기타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계속사업이익	법인세비용
중단사업이익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이익	중단사업손익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보험수리차손익
	재평가손익
	기타
	총포괄손익

<표 9>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용 현금흐름표 조건표

K-GAAP	K-IFRS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당기순손익	당기순손익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 가산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감가상각비) ¹⁾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무형자산상각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유동자산의 감소	기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²⁾
(단기투자증권의 처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자산의 감소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금융자산의 감소
유형자산의 감소	투자자산의 감소
(토지의 처분)	유형자산의 감소
(건물·구축물의 처분)	(토지의 감소)
(기계장치의 처분)	(건물·구축물의 처분)
기타	(기계장치의 처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기타
유동자산의 증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단기투자증권의 취득)	금융자산의 증가
투자자산의 증가	투자자산의 증가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유형자산의 증가
유형자산의 증가	(토지의 취득)
(토지의 취득)	(건물·구축물의 취득)
(건물·구축물의 취득)	(기계장치의 취득)
(기계장치의 취득)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	기타
기타	기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유동부채의 증가	유동성장기부채의 증가
(단기차입금의 증가)	사채의 증가
비유동부채의 증가	차입금의 증가
(회사채의 발행)	유상증자
(장기차입금의 증가)	기타
자본의 증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기타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사채의 감소
유동부채의 감소	차입금의 감소
(단기차입금의 상환)	유상감자
비유동부채의 감소	기타
(회사채의 상환)	기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장기차입금의 상환)	(배당금의 지급)
자본의 감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배당금의 지급	환율변동 효과
기타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증감액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기초의 현금	
기말의 현금	

주: 1)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타 재무비율에서 활용됨에 따라 추가
2) 기타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 포함)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이차지급(수취), 배당금지급(수취), 법인세납부(환입) 관련 계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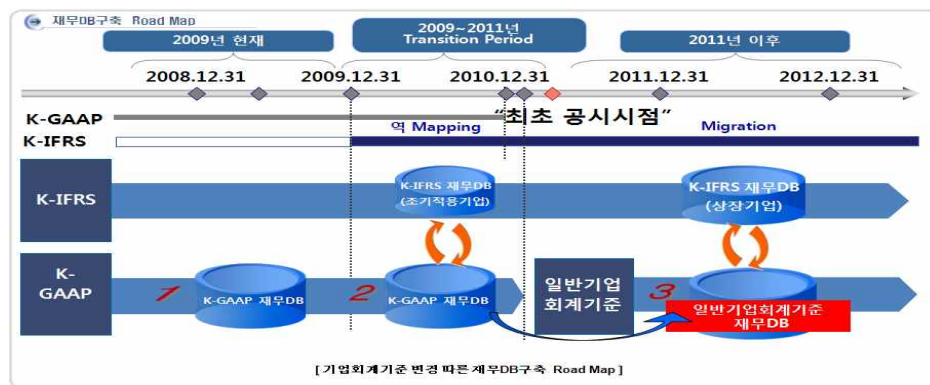
5. IFRS용 통계자료의 순차적 적용방안

2009년부터 IFRS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11년까지는 기존 K-GAAP 환경 하에서 작성된 재무제표와 금번에 새로 도입되는 IFRS용 재무제표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과도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K-GAAP 기준으로 작성되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재무자료에 대하여 과도기의 적용방식은 물론 향후 IFRS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편제의 순차적 변경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IFRS 기준변경 등의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면, <그림 17>에서와 같이 ‘IFRS용 표준 재무 DB’와 ‘기존 K-GAAP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병행하여 DB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IFRS용 통계자료의 순차적 적용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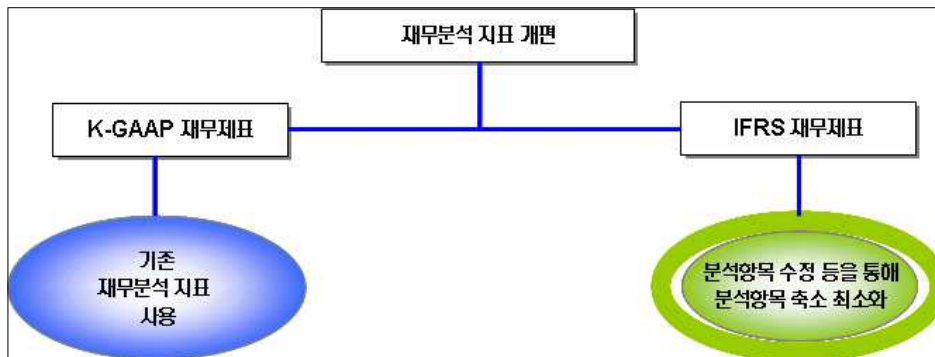
IV. IFRS용 재무분석 지표 개편방향

1. 재무분석 지표 개편방향과 유형구분

IFRS용 재무분석 지표를 새로이 생성하기 위해 현행 K-GAAP용 재무제표와 재무분석 개별지표를 분석하고 앞에서 언급한 IFRS용 표준 재무제표와 비교·검토함으로써 재무분석 개별 지표 생성에 필요한 해당 계정과목의 삭제 유무나 의미 변화 등을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재무지표의 개편방향을 도출하였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용 재무분석 지표 개편방향



개별 분석지표에 대한 삭제 및 유지, 산식변경, 의미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하였는데, 재무분석 지표로 사용된 계정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계정과목을 활용하여 분석항목의 대폭적 축소를 방지하는 한편 시계열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해요인이 축소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재무분석 지표의 변경에 적용한 기본 원칙은 <표 10>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용 재무분석 지표 개편 원칙

공시여부가 불분명한 재무비를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이익,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등 비용관련 세부계정(성격별 공시시 공시여부 불투명),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제조원가관련계정, 이익잉여금처분관련계정 등
계정명이 변경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매입채무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이자비용 ⇒ 금융비용, 이자수익 ⇒ 금융수익 등 - 총비용: 총수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비현금성 감가상각비 등: 현금흐름표상 비현금성 감가상각비 활용
신규 재무비율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부채 관련 재무비율 생성 - 포괄손익계산서상 포괄손익관련 재무비율 생성 등

첫째, 계정과목의 공시여부가 불분명한 재무분석 지표 항목은 삭제 처리하였다. 공시여부가 불확실한 계정과목으로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 매출원가-판매관리비 등 비용관련 세부계정(성격별 공시시에는 공시여부가 불확실)이며, 제조원가명세서의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관련계정,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관련 계정 등이다.

둘째, 계정명이 변경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계정명이 변경된 주요 사례로는 ‘매출채권’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으로, ‘매입채무’는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이자비용’이 ‘금융비용’으로, ‘이자수

익'이 '금융수익'으로 변경된 바 있다. 또한 대체산식을 이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총비용'을 '총수익-법인세비용차감전 순손익'으로, '비현금성 감가상각비(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 기재분)'를 '현금흐름표상 비현금성 감가상각비'로 활용하여 수정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셋째, IFRS의 도입에 따라 신규 생성되는 계정과목 중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금번에 새로운 재무분석 지표로 편입하였다. 대표적으로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부채관련 항목을 연계한 재무지표와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포괄손익관련 재무비율 등을 꼽을 수 있다.

<표 1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용 재무분석 지표 개편에 대한 사례

비율명	의미	K-GAAP 산식	K-IFRS 산식	비 고
매출액증가율	전기대비 당기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text{매출액C} - \text{매출액B}) / \text{매출액B} \times 100$	좌 동	K-GAAP 산식 유지
영업이익증가율	전기대비 당기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text{영업이익C} - \text{영업이익B}) / \text{영업이익B} \times 100$	제 거	영업이익 공시여부 불투명
순금융비용부담률	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잔액, 즉, 금융거래로 지급한 순수한 이자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text{이자비용C} - \text{매출채권처분손실C} - \text{이자수익C}) / \text{매출액C} \times 100$	$(\text{금융비용C} - \text{금융수익C}) / \text{매출액C} \times 100$	금융비용 총액에서 금융수익 총액을 차감한 후 순금융비용을 도출
포괄이익률	매출액대비 당기 포괄이익을 보여주는 비율	-	$\text{포괄이익C} / \text{매출액C} \times 100$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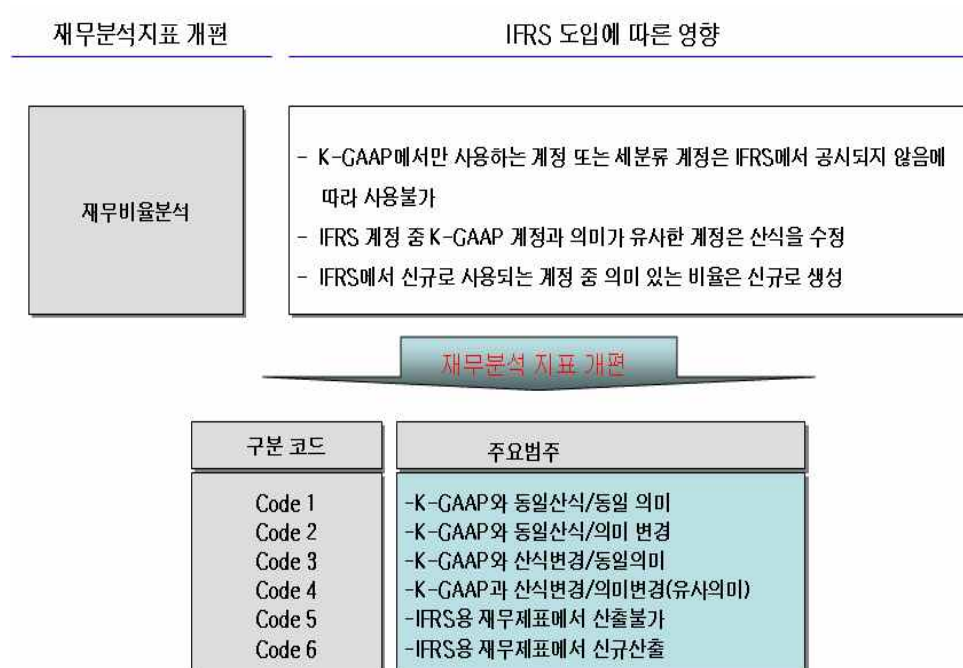
이러한 세 가지 재무분석 지표개편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로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알기 쉽게 <표 11>에 몇 가지 사례를 적시해 보았다. 매출액증가율은 K-GAAP 유지(예전과 동일), 영업이익증가율은 삭제(영업이익의 공시여부가 불확실), 순금융비용부담

률은 금융비용 총액에서 금융수익 총액을 차감한 후 순금융비용을 산출하여 수정산식을 적용, 포괄이익률은 금변에 새로운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무분석 지표 전체에 대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개편원칙을 적용하여 전체의 경우의 수를 <그림 19>와 같이 모두 6가지 유형으로 재구분해 보았다.

<그림 19>

IFRS 도입에 따른 재무분석 지표 개편유형 구분



2. 재무분석 지표의 영향도 분석

가. 재무분석 지표의 영향도 분석 유형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비상장기업은 선택 적용 가능)하게 되는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비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범위가 확대되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소 공시사항만을 규정하여 기업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시하게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 12>

재무분석 지표의 영향도 분석

구분	회계기준 변경사항 비교		재무지표의 영향도
	K-GAAP	K-IFRS	
경제적 실질 반영	- 취득원가로 평가, 일부 항목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 - 거래의 형식을 고려	- 기존 취득원가로만 평가하던 항목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 허용 - 경제적 실질을 고려	재무비율 산출 값의 변화
공시체계 간소화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공시항목 제시	최소 공시사항만 규정	일부 재무비율 산출 불가
주 재무제표 변경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비중 증대
회계기준의 이원화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통일 적용	상장기업만 의무적용 (비상장기업은 선택적용)	통계 대상별로 차등 적용 필요

이에 따라 재무분석 지표의 영향도를 사전에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변화를 (1) 경제적 실질 반영, (2) 공시체계의 간소화, (3) 주 재무제표 변경, (4) 회계기준의 이원화 및 기타사항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경제적 실질의 반영(최초 도입효과 기준)

<표 13>

경제적 실질반영에 따른 재무계정 영향도 분석 결과

구 분	계정 영향도 요약	영향을 받는 계정	예상 영향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유형자산	IFRS 최초채택시 유형자산의 평가로 인해 자산과 자본(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예상됨. 또한 평가로 인해 증가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함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		(+)
무형자산 (영업권 제외)		무형자산 무형자산상각비	(+)		(+)		(+)
투자 부동산	최초 채택시 효과는 유형자산과 동일하며, 향후 재평가차손익의 발생에 따라 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함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재평가 차익(차손)	(+)		(+)	(?)	(?)
영업권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영업권 무형자산상각비 등	(+)		(+)		(-)
퇴직급여 채무	일반적으로 평균 근속기간 및 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높으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손익		(+)	(-)		(+)
상환우선주 분류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함으로 인해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차입에 대한 금융원가로 처리됨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	(-)		(+)
금융자산 매각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가 매각거래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부실자산에 대한 매각거래를 환입해야 함으로 부채상승 예상	금융자산 (대출채권 등) 금융부채 등	(+)	(+)			
공사수익/ 원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사수익/원가를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을 적용하게 됨으로 인해 수익과 비용을 인도시점에 일시에 인식하게 됨으로써 계정값의 변동성이 커짐	미성공사 공사수익 공사원가 등	(?)	(?)	(?)	(?)	(?)
고객충성 제도	매출액의 일부를 부채로 분류하여 인식하므로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충당부채전입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없음	매출 이연매출(보상점수 매출) 등				(-)	(-)

<표 14>

경제적 실질반영에 따른 재무분석 지표 영향도 분석 결과

구 분	영향을 받는 계정	영향을 받는 재무비율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간주원가 적용 유형자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이익잉여금	총자산순이익률 (-) 부가가치율 (0) 차입금대총자산비율(-)	긍정효과 -차입금대총자산비율 -차입금대고정자산비율
간주원가 적용 무형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상각비 이익잉여금	차입금대고정자산비율 (-) 총자산회전율 (-)	부정효과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간주원가 비적용 유형자산	유형자산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감가상각비	총자산순이익률 (-) 부가가치율 (0) 차입금대총자산비율(-)	긍정효과 -차입금대총자산비율 -차입금대고정자산비율
간주원가 비적용 무형자산	무형자산 무형자산재평가잉여금 무형자산상각비	차입금대고정자산비율 (-) 총자산회전율 (-)	부정효과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재평가차익(차손) 이익잉여금	총자산순이익률 (?) 부가가치율 (?) 차입금대총자산비율 (-) 차입금대고정자산비율 (-) 총자산회전율(-)	긍정효과 -차입금대총자산비율 -차입금대고정자산비율 부정효과 -총자산회전율
영업권	영업권 무형자산상각비 등	총자산순이익률 (+) 차입금대총자산비율 (-) 차입금대고정자산비율 (-) 총자산회전율 (-)	긍정효과 -총자산순이익률 -차입금대총자산비율 -차입금대고정자산비율 부정효과 -총자산회전율
퇴직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손익	총자산순이익률 (-) 부가가치율 (-) EBITDA대금융비용비율 (-)	부정효과 -총자산순이익률 -부가가치율 -EBITDA대금융비용비율
상환우선주 분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총자산순이익률 (-) 부가가치율 (-) 부채비율 (+) 자기자본비율 (-)	부정효과 -총자산순이익률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
금융자산 매각	금융자산(대출채권 등) 금융부채 등	부채비율 (+) 자기자본비율 (-)	부정효과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공사수익/원가	미성공사 공사수익 공사원가 등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 총자산순이익률 (?) 부가가치율 (?) EBITDA대금융비용비율 (?) 총자산회전율 (?)	효과 불확실 분석지표 불안정성 발생 (건설업)
고객충성 제도	매출 이연매출 (보상점수매출) 등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 총자산회전율 (-)	부정효과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총자산회전율

다. 공시체계의 변화에 따른 영향

<표 15>

공시체계 변화에 따른 재무분석 지표 영향도 분석 결과

구 분	영향을 받는 계정	내 용	영향을 받는 재무분석 지표
재무상태표 배열방법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함목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단, 재화나 서비스를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 제공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동/비유동 항목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함	유동부채대유동자산비율 유동부채대자기자본비율 유동부채대매출액비율 이익잉여금대유동자산비율
포괄 손익계산서 최소 공시항목	영업이익	포괄손익계산서의 최소 공시항목으로 규정된 항목은 중단영업손익과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만 해당됨. 따라서, 영업이익이 최소 공시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 영업이익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대체하여 산출이 가능함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중단사업손실 + 법인세비용 + 금융원가 + 기타비용 - 중단사업이익 - 관계기업이익지분 - 금융수익 - 기타수익)	영업이익대이자비용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EBITDA 관련 비율 (EBITDA가 영업이익에 기반한 경우)
	인건비 복리후생비 임차료 등	포괄손익계산서의 최소 공시항목으로 성격별로 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 이외의 다른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위 계정에 대한 공시여부가 불투명함. 하위 계정이 공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율' 등의 재무비율 산출이 어려움	부가가치율 순금융비용대부가가치비율
포괄 손익계산서 비용 분류방법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포괄손익계산서는 성격별 분류법과 기능별 분류법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함. 기능별 분류법을 따르는 경우에만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성격별 분류법을 따르는 경우에는 매출총이익 산출이 불가능함	매출총이익대금융비용비율

라. 주재무제표 변경 및 회계기준 이원화의 영향

<표 16>

주재무제표 변경 및 회계기준 이원화의 영향 분석 결과

구 분	변경 내용	계정영향도 요약	영향을 받는 계정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분 류	현행 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발생원천에 따라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나, 변경된 기준에서는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도록 함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이 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전체 자산의 규모는 변화가 없으나, 유동자산은 감소, 비유동자산은 증가가 예상됨	유동자산 (부채) 비유동자산 (부채)
연결 재무제표	연결대상 기업이 지분을 30% 초과 최대 주주 기준에서 지분을 50%초과로 변동 되었고, 특수목적기업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연결대상 자회사의 범위가 변동됨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비교시 소수주주지분을 제외한 자본과 당기순이익은 차이가 없으며, 연결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가 개별재무제표보다 크게 나타남	자산 부채
회계기준 이원화	현행 기준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었으나, IFRS는 상장사에 한해 의무적으로 적용 하여야 하며 비상장사는 선택한 기업만 적용대상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함	-	

3. 한국은행용 재무분석 지표 구성(안)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등재된 각각의 재무분석 지표에 대하여 K-GAAP과 (1)동일산식/동일의미, K-GAAP과 (2)동일산식/의미변경, K-GAAP과 (3)동일의미/산식변경, K-GAAP과 (4)산식변경/의미변경, (5)산출불가, (6)신규산식으로 구분하여 분석지표 도출안을 구성하여 보았다.

참고로 <표 17>의 성장성 관련 지표는 모두 현행 K-GAAP과 동일하여 현재의 산식유지 및 동일의미를 갖는 1번으로 분류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7> 성장성 관련 지표

내역	현행 K-GAAP 산식	K-IFRS 산식	구분 코드	비고
총자산증가율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100-100	(당기말 총자산/전기말 총자산)*100-100	1	현행 유지
유형자산증가율	(당기말 유형자산/전기말 유형자산)*100-100	(당기말 유형자산/당기말 유형자산)*100-100	1	현행 유지
유동자산증가율	(당기말 유동자산/전기말 유동자산)*100-100	(당기말 유동자산/전기말 유동자산)*100-100	1	현행 유지
재고자산증가율	(당기말 재고자산/전기말 재고자산)*100-100	(당기말 재고자산/전기말 재고자산)*100-100	1	현행 유지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 자기자본/전기말 자기자본)*100-100	(당기말 자기자본/전기말 자기자본)*100-100	1	현행 유지
매출액증가율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1	현행 유지

[구분코드] 1:K-GAAP과 동일산식/동일의미, 2:K-GAAP과 동일산식/의미변경, 3:K-GAAP과 동일의미/산식변경, 4:K-GAAP과 산식변경/의미변경, 5:산출불가, 6:신규산식

<표 18>부터 <표 24>까지는 재무분석 지표가 영향을 받는 정도에 대하여 유형을 구분한 분석결과를 표시하고 있으며, 각 항목마다 기존 K-GAAP과 동일한 산식과 의미를 갖는 재무분석 지표 유형 (1)의 표시는 모두 생략하고 변경되는 항목만을 나열한 것이다.

<표 18>

손익의 관계비율(1)

내역	K-IFRS 산식	구분코드	비고
총자산 총포괄순이익률	(총포괄순이익/총자산)*100	6	신규
자기자본 총포괄순이익률	(총포괄순이익/자기자본)*100	6	신규
자본금 총포괄순이익률	(총포괄순이익/자본금)*100	6	신규
매출액 총포괄순이익률	(총포괄순이익/매출액)*100	6	신규
매출액 영업이익률	1안) 산출불가	5	영업손익이 필수 공시항목이 아님
	2안) ((매출총손익-물류원가및 관리비)/매출액)*100	3	영업손익을 '매출총손익-물류원가및관 리비'로 수정하여 산출
변동비 대 매출액	(변동비/매출액)*100	3	산식은 동일하나 K-GAAP에서는 변동 비율 (매출원가+판매비+영업외비용)으 로 산출한 반면 K-IFRS에서는(매출원 가+물류원가및관리비+기타비용+금융비 용+관계기업관련손실)로 산출하여야 함
고정비 대 매출액	(고정비/매출액)*100	3	상동
인건비 대 매출액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매출액)*100	4	포괄손익계산서의 인건비만을 활용하 여 산출
인건비 대 영업총비용	산출불가	5	K-IFRS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 되지 않아 제조원가관련 인건비 및 영 업총비용 산출이 불가
재료비 대 매출액	산출불가	5	K-IFRS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 되지 않아 제조원가관련 재료비 산출 이 불가
재료비 대 영업총비용	산출불가	5	K-IFRS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 되지 않아 제조원가관련 재료비 및 영 업총비용 산출이 불가
EBIT 대 매출액	1안) ((세전순이익+이자비용)/ 매출액)*100	1	현행 K-GAAP 산식 유지
	2안) ((세전순이익+금융비용)/ 매출액)*100	4	이자비용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 비용을 적용
EBITDA 대 매출액	1안) ((세전순이익+이자비용+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매출액)*100	3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현금 흐름표상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 비 값을 활용하여 산출
	2안) ((세전순이익+금융비용+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매출액)*100	4	이자비용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 비용을 적용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 비)/(유형자산+무형자산-(건설 중인자산+토지)+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100	3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현금 흐름표상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 비 값을 활용하여 산출

[구분코드] 1:K-GAAP과 동일산식/동일의미, 2:K-GAAP과 동일산식/의미변경, 3:K-GAAP과 동일의미/산식변경, 4:K-GAAP과 산식변경/의미변경, 5:산출불가, 6:신규산식

<표 19>

손익의 관계비율(2)

내역	K-IFRS 산식	구분 코드	비고
금융비용 대 부채	1안) (이자비용/부채)*100	1	현행 K-GAAP 산식 유지
	2안) (금융비용/부채)*100	4	이자비용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비용을 적용
차입금 평균이자율	1안) (이자비용/(회사채+장·단기 차입금))*100	1	현행 K-GAAP 산식 유지
	2안) (금융비용/(회사채+장·단기 차입금))*100	4	이자비용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비용을 적용
금융비용 대 총비용	1안) (이자비용/(매출원가+물류원가및관리비+기타비용+금융비용+관계기업관련손실))*100	3	"총비용=매출원가+물류원가및관리비+기타비용+금융비용+관계기업관련손실"로 산식 변경
	2안) (금융비용/(매출원가+물류원가및관리비+기타비용+금융비용+관계기업관련손실))*100	4	이자비용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비용을 적용
금융비용 대 매출액	1안) (이자비용/매출액)*100	1	현행 K-GAAP 산식 유지
	2안) (금융비용/매출액)*100	4	이자비용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비용을 적용
순금융비용 대 매출액	1안) ((이자비용-이자수익)/매출액)*100	1	현행 K-GAAP 산식 유지
	2안) ((금융비용-금융수익)/매출액)*100	4	이자비용/이자수익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비용/금융수익을 적용
이자보상비율	1안) 산출불가	5	K-IFRS에서는 영업손익이 필수 공시항목이 아님
	2안) ((매출총손익-물류원가및관리비)/이자비용)*100	3	"영업손익=매출총손익-물류원가및관리비"로 수정하여 산출
	3안) ((매출총손익-물류원가및관리비)/금융비용)*100	4	이자비용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비용을 적용
순이자보상비율	1안) 산출불가	5	K-IFRS에서는 영업손익이 필수 공시항목이 아님
	2안) ((매출총손익-물류원가및관리비)/(이자비용-이자수익))*100	3	"영업손익=매출총손익-물류원가및관리비"로 수정하여 산출
	3안) ((매출총손익-물류원가및관리비)/(금융비용-금융수익))*100	4	이자비용/이자수익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비용/금융수익을 적용
손익분기점률	산출불가	5	K-IFRS에서는 영업외손익이 필수 공시항목이 아님
사내유보율	산출불가	5	K-IFRS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서 제외됨에 따라 산출불가

[구분코드] 1:K-GAAP과 동일산식/동일의미, 2:K-GAAP과 동일산식/의미변경, 3:K-GAAP과 동일의미/산식변경, 4:K-GAAP과 산식변경/의미변경, 5:산출불가, 6:신규산식

<표 20>

자산·자본의 관계비율

내역	K-IFRS 산식	구분 코드	비고
당좌비율	1안)산출불가	5	K-IFRS에서는 당좌자산이 필수 공시항목이 아님
	2안)((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100	4	"당좌자산=유동자산-재고자산"의 산식 수정을 통해 산출

[구분코드] 1:K-GAAP과 동일산식/동일의미, 2:K-GAAP과 동일산식/의미변경, 3:K-GAAP과 동일의미/산식변경, 4:K-GAAP과 산식변경/의미변경, 5:산출불가, 6:신규산식

<표 21>

자산·자본의 회전율

내역	K-IFRS 산식	구분 코드	비고
경영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건설중인자산+투자자산))	4	K-GAAP에서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포함한 반면 K-IFRS 투자자산은 관계기업 등의 투자자산만을 의미함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	매출채권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으로 수정하여 산출
매입채무회전율	매출액/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4	매입채무는 매입채무및기타채무로 수정하여 산출

[구분코드] 1:K-GAAP과 동일산식/동일의미, 2:K-GAAP과 동일산식/의미변경, 3:K-GAAP과 동일의미/산식변경, 4:K-GAAP과 산식변경/의미변경, 5:산출불가, 6:신규산식

<표 22>

생산성에 관한 지표

내역	K-IFRS 산식	구분 코드	비고
종업원1인당부가가치	부가가치/종업원수	5	K-IFRS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되지 않아 제조원가관련 비용 산출이 불가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총자본)*100	5	K-IFRS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되지 않아 제조원가관련 비용 산출이 불가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100	5	K-IFRS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되지 않아 제조원가관련 비용 산출이 불가
기계투자효율	(부가가치/기계장치)*100	5	K-IFRS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되지 않아 제조원가관련 비용 산출이 불가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산출액)*100	5	K-IFRS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되지 않아 제조원가관련 비용 산출이 불가
노동소득분배율	(인건비/요소비용부가가치)*100	5	K-IFRS에서는 인건비, 영업손익 등과 관련한 값이 공시되지 않거나 일부만 공시됨

[구분코드] 1:K-GAAP과 동일산식/동일의미, 2:K-GAAP과 동일산식/의미변경, 3:K-GAAP과 동일의미/산식변경, 4:K-GAAP과 산식변경/의미변경, 5:산출불가, 6:신규산식

<표 23>

부가가치의 구성

내역	K-IFRS 산식	구분 코드	비고
영업잉여	1안) 산출불가	5	K-IFRS에서는 영업손익이 필수 공시항목이 아님
	2안)매출총손익-물류원가및관리비+대손상각비-이자비용	3	"영업손익=매출총손익-물류원가및관리비"로 수정하여 산출
	3안)매출총손익-물류원가및관리비+대손상각비-금융비용	4	이자비용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비용을 적용
인건비	1안)산출불가	5	K-IFRS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되지 않아 제조원가관련 인건비 산출이 불가
	2안)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2	인건비를 물류원가및관리비 항목으로만 산출
금융비용	1안)이자비용	1	현행 K-GAAP 산식 유지
	2안)금융비용	4	이자비용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비용을 적용
조세공과	1안)산출불가	5	K-IFRS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시되지 않아 제조원가관련 제세공과금 산출이 불가
	2안)세금과공과	2	제세공과금을 물류원가및관리비 항목으로만 산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3	감가상각비를 현금흐름표상 감가상각비 값을 활용하여 산출

<표 24>

현금흐름비율

내역	현행산식	K-IFRS 산식	구분 코드	비고
현금흐름 보상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자비용)/(단기차입금+이자비용))*100	1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자비용)/(단기차입금+이자비용))*100	1	현행 유지
		2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금융비용)/(단기차입금+금융비용))*100	4	이자비용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비용을 적용
현금흐름 이자보상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자비용)/이자비용)*100	1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자비용)/이자비용)*100	1	현행 유지
		2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금융비용)/금융비용)*100	4	이자비용 대신 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비용을 적용
총포괄손익 대 영업활동 현금흐름	-	(총포괄손익/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00	6	신규

V. 맺음말

1. IFRS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과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본문 중 “문단 12”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기업의 재무제표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이로써,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흐름의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자본시장 참여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신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소재 사업장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재무보고 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IFRS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부담에 대해 경제주체 각각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IFRS 도입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재무보고 비용증가,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등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

으로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폐단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주도의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고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하여 K-GAAP을 작성, 적용하여 왔으나 여전히 IFRS와는 상이한 점이 많아 일반인들이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주요원인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금번에 우리나라도 IFRS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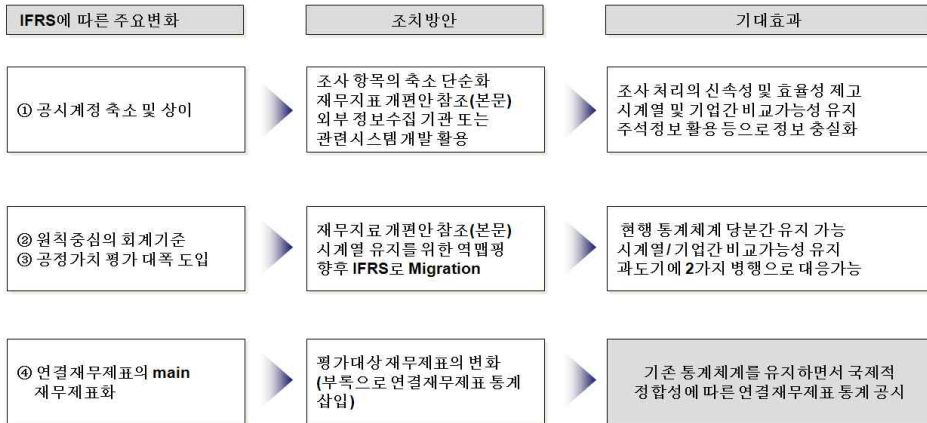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의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금번 우리나라의 IFRS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2. 통계편제 개편시 추가 참고사항

금번 IFRS의 도입에 따라 ① 기업 재무제표의 공시계정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고, ②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및 공정가치 평가의 적용 등에 따라 재무자료의 시계열 안정성 저하는 물론 회계기준의 이원화(상장기업 : IFRS, 비상장기업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개별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통계의 준거가 되는 평가대상 재무제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 25>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개편에 대한 참고사항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금번 기업 경영분석 통계체제 개편에 추가적으로 참고할 사항을 정리하여 보았다. 먼저 ① 금번 IFRS 도입을 계기로 조사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조사항목을 일부 축소 및 단순화하는 방안, ② 조사처리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IFRS용 주식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K-GAAP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사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통계의 시계열 및 기업간 비교 가능성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계기준의 이원화 등에 따른 과도기적인 혼란에 대비하여 K-GAAP과 K-IFRS를 병행처리하는 통계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간의 연결규칙(mapping rule)을 마련하여 상호 관

런성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번 IFRS의 주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이므로 향후 장기적으로는 연결 재무제표 위주로 적용방식이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IFRS와 K-GAAP이 혼용되는 과도기에는 IFRS용 통계결과를 부록으로 추가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의 제약사항과 향후 과제

본 연구의 주된 제약요인은 국내에 실제로 발표된 K-IFRS 재무제표의 관찰 빈도가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2009년에 조기 발표한 국내 14개 기업에 대하여 실제 발표된 재무제표 사례를 모두 검토하였으나 주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발표사례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2009년 12월에 발표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사례는 현재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세부 계정과목은 업종별 대표 기업들의 IFRS용 재무제표가 공시될 경우, 추가로 표준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이 첨삭되거나 수정하여야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시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과목 및 재무분석 지표가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제약요인은 IFRS용 회계기준이 추가로 개정되는 등 변동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IFRS는 미국회계기준과 컨버전스(convergence) 과정에 있어 재무제표 표

시등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IFRS 관련 기준서가 개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K-IFRS도 동일하게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편제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IFRS용 재무제표의 발표사례 증가 및 추가적인 IFRS의 변경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회」, 2007
- 김문철·안영균·정혜영,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수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 15권 제3호, 2006, pp 165-194
- 이장규 외, 『IFRS, 회계국경이 사라진다』, 교보문고, 2008
- 최종서·황인태, 『비상장기업 회계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2006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7-2, 2007
- 한국회계학회, 「국제회계기준 관련 변경내용 교육 세미나」, 2008
- 황인태·최종서·강선민,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방향」,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8주년 기념 세미나, 2007
- 황인태·한봉희·강선민,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금융감독원, 2008
- Aisbitt, Sally, "Assessing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to IFRS on Equity : The Case of the FTSE 100," *Accounting in Europe* Vol.3, 2006
- Cairns, David, "The Use of Fair Value in IFRS," *Accounting in Europe* Vol.3, 2006
- Hoogendoorn, Martin, "International Accounting Regulation and IFRS Implementation in Europe and Beyond - Experiences with First-time Adoption in Europe," *Accounting in Europe* Vol.3, 2006

<별첨 1>

기업경영분석용 재무상태표 코드집(안)

계정코드	계정코드명
1000	자산
1100	비유동자산
1110	유형자산
1120	토지
1130	설비자산
1140	(건물·구축물)
1150	(기계장치)
1160	(선박·차량운반구)
1170	(기타설비자산)
1180	건설중인자산
1190	기타유형자산
1200	영업권
1210	무형자산
1220	(개발비)
1230	투자자산
1240	매도가능금융자산
1250	만기보유금융자산
1260	기타비유동자산
1500	유동자산
1510	재고자산
1520	상(제)품 및 반제품
1530	원재료
1540	기타재고자산
1550	단기금융자산
156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570	현금및현금성자산
1580	기타유동자산
159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처분자산집단
2000	자본
2100	자본금
2200	자본잉여금
2300	기타자본
24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00	(재평가잉여금)
2600	이익잉여금
3000	부채
3100	비유동부채
3110	사채
3120	장기차입금
3130	기타비유동부채
3200	유동부채
3210	단기사채
3220	단기차입금
3230	유동성장기부채
324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250	기타유동부채
3260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3270	부채 및 자본의 합계

<별첨 2>

기업경영분석용 포괄손익계산서 코드집(안)

계정코드	계정코드명
5000	매출액
5100	매출원가
5200	매출총손익
5300	기타수익
5310	외환차익
5320	외환환사이익
5330	자산처분이익
5340	자산재평가이익
5350	기타
5400	물류원가및관리비
5410	급여
5420	퇴직급여
5430	복리후생비
5440	수도광열비
5450	세금과공과
5460	임차료
5470	감가상각비
5480	접대비
5490	광고선전비
5500	연구개발비
5510	보험료
5520	운반비
5530	기타물류원가
5540	모관료
5550	포장비
5560	대손상각비
5570	무형자산상각비
5580	(개발비상각)
5590	지급수수료
5600	기타
5700	기타비용
5710	외환차손
5720	외환환차손실
5730	자산처분손실
5740	자산재평가손실
5750	기타
5800	금융수익
5810	이자수익
5820	배당금수익
5830	파생상품거래이익
5840	파생상품평가이익
5850	기타금융수익
5900	금융비용
5910	이자비용
5920	파생상품거래손실
5930	파생상품평가손실
5940	기타금융비용
6000	관계기업관련 손익
6010	지분법손익
6020	관계기업처분손익
6030	기타
6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6200	법인세비용
6300	계속사업손익
6400	중단사업손익
6500	당기순손익
6600	기타포괄손익
6610	매도가등금융자산 평가손익
6620	해외사업환산손익
6630	보험수리척손익
6640	재평가손익
6650	기타
6700	총포괄손익

<별첨 3>

기업경영분석용 현금흐름표 코드집(안)

계정코드	계정코드명
8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010	당기순손익
8020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 가산
8030	(감가상각비)
8040	(무형자산상각비)
8050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
8060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8070	기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1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11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120	금융자산의 감소
8110	투자자산의 감소
8120	유형자산의 감소
8130	(토지의 감소)
8140	(건물·건축물의 처분)
8150	(기계장치의 처분)
8160	기타
82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210	금융자산의 증가
8220	투자자산의 증가
8230	유형자산의 증가
8240	(토지의 취득)
8250	(건물·건축물의 취득)
8260	(기계장치의 취득)
8270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
8280	기타
8290	기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3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31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320	유동성장기부채의 증가
8330	사채의 증가
8340	차입금의 증가
8350	유상증자
8360	기타
84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41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8420	사채의 감소
8430	차입금의 감소
8440	유상감자
8450	기타
8460	기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470	(배당금의 지급)
85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8600	환율변동 효과
870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880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